

해외축구중계 보려고 앱 켜다가, “어? 지금이 경기 시작 시간이 아닌데?” 하고 당황한 적 한 번쯤 있을 거야. 특히 유럽 리그는 킥오프 시간이 현지 기준으로 딱 적혀 있어서, 한국 시청자 입장에서는 시차를 모르거나 대충 감으로 보면 바로 어긋나더라.

그래서 오늘은 진짜로 써먹을 수 있게, KST(한국시간) 계산법을 “상황별”로 정리해볼게. 중계 시작 10분 전에 타이밍 맞추고, 축구중계 사이트에서 일정도 놓치지 않는 쪽으로.

아무튼 핵심은 이거야. 해외축구중계에서 시간을 볼 때는 현지 시간이 어떤 타임존인지부터 잡아야 해. 영국시간인지, 중앙유럽시간(CET/CEST)인지에 따라 KST가 달라져. 그리고 영국이나 유럽은 시즌에 따라 서머타임이 들어가서 시차가 1시간씩 변할 때가 있어. 이 차이를 알아야 “하필 오늘만” 빗나가는 일을 줄일 수 있다.

먼저 리그 일정이 왜 ‘같은 느낌’이 아닌지부터

해외축구중계를 보다 보면 “EPL이랑 라리가랑 보면 되지” 싶을 때가 있는데, 리그 자체가 시즌 기간과 편성 방식이 꽤 다르다. 일정이 다르면 당연히 킥오프가 한국에 떨어지는 시간도 달라지고, 결국 시차 계산의 중요도가 더 커져.

예를 들어 EPL [해외축구중계](#) 2026/27은 공식적으로 2026년 8월 21일 시작이고, 최종 라운드는 2027년 5월 30일에 동시에 킥오프한다는 식으로 기간이 잡혀 있어. EPL은 8월부터 5월까지 시즌이 걸려 있고, 주말과 평일 편성에 따라 기본 킥오프 시각도 달라진다고 안내되어 있어.



주말·공휴일은 영국 시간 15:00, 평일은 영국 시간 20:00을 기본으로 잡는 방식이고, 별도 표기가 없을 때 기준으로 생각하라고 되어 있지.

라리가는 2026/27이 2026년 8월 14~16일 주말에 시즌 시작, 1라운드는 8월 15일~27일 사이로 확정이라고 했고, 편성 안내에서 예시로 금 21:00, 토/일 14:00·16:15·18:30·21:00, 월 21:00(CET) 같은 식으로 현지 시간대를 보여주거든. 이때 한국 시청자는 CET/CEST 같은 중앙유럽 시간을 KST로 바꿔 봐야 한다는 포인트가 딱 들어있어.

즉, “시차만 알면 된다”가 아니라 “어느 지역 시간인지”를 알아야 시차 계산이 정확해지고, 그게 결국 중계 볼 타이밍을 결정해.

KST 계산의 기본 공식, 생각보다 간단해

KST는 한국 표준시니까 기준점이 명확해. 보통 KST는 UTC+9로 잡아.

그러면 해외 리그의 현지 시간이 어느 UTC 오프셋에 해당하는지 연결하면 돼.

다만 문제는 영국이랑 중앙유럽은 서머타임 때문에 오프셋이 계절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계절에 따라 바뀐다고만 기억”하면 오히려 더 헷갈리니까, 계산할 때는 이렇게 접근하면 좋아.



1) 현지 시간이 어느 ‘시간 체계’인지 먼저 판별

- EPL은 안내 기준상 영국 시간(UTC+0 또는 UTC+1 계절)로 킥오프가 말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 라리가나 분데스리가는 안내에서 CET/CEST처럼 중앙유럽 시간을 기준으로 말하는 편이 있고, 예시로 CET가 찍히는 경우가 있어.

여기서부터는 “현지 시간 + 시차 = KST”로 끝내는 구조야.

영국 시간(UK, EPL)에서 KST로 바꾸는 법

EPL 2026/27 편성 기준에서 킥오프는 “주말·공휴일은 15:00, 평일은 20:00(영국 시간)” 같은 식으로 나온다고 했지. 그러면 KST로 바꾸는 건 딱 두 경우로 나뉘어.

영국이 서머타임이 적용된 기간이면 영국 시간은 1시간 빠른 쪽(BST, UTC+1), 서머타임이 아니면 표준 쪽(GMT, UTC+0)이야.

KST(UTC+9)로 바꿀 때는 결과적으로 시차가 “9시간 차이 또는 8시간 차이”로 갈리는 느낌이 생겨.

정리해서 말하면 이렇게야.

- 영국이 GMT(UTC+0)일 때: KST = 영국시간 + 9시간
- 영국이 BST(UTC+1)일 때: KST = 영국시간 + 10시간

여기서 “그럼 나는 서머타임 여부를 어떻게 알아?”가 진짜 질문인데, 현실에서는 일정표나 중계 앱이 보통 알아서 “KST로 변환된 시간”을 같이 보여주거나, 적어도 날짜별로 유효한 변환을 해주는 편이더라. 그래도 직접 계산해야 할 때가 있으니까, 방법을 같이 줄게.

당장 실전에서는 경기 날짜를 보고 해당 기간이 대체로 서머타임 구간인지 감으로라도 잡아두는 게 도움이 돼. 그리고 가장 안전한 방법은, 축구중계사이트나 앱에서 “같은 경기”가 KST로 어떻게 표시되는지 한 번 비교해 보는 거야. 직접 계산은 훈련용으로, 확인은 서비스 표기로.

아래는 킥오프 시간을 숫자 그대로 넣어보는 예시야.

예시 1: EPL 주말 킥오프 15:00(영국 시간)

- GMT 기준이라면 15:00 + 9시간 = KST 24:00, 즉 자정 전후
- BST 기준이라면 15:00 + 10시간 = KST 25:00, 즉 다음 날 1시 전후

이런 형태로 “자정 넘길지, 새벽 1시로 밀릴지”가 갈려. 딱 이 차이 때문에 시차 계산을 대충 하면 종종 경기 전반을 놓치게 돼.

예시 2: EPL 평일 킥오프 20:00(영국 시간)

- GMT 기준이라면 20:00 + 9시간 = KST 05:00
- BST 기준이라면 20:00 + 10시간 = KST 06:00

평일 20:00이면 한국에서는 새벽 5시대 또는 6시대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서머타임 구간이면 체감이 확 달라져. “분명히 오늘 새벽 5시에 봐야 하는데 왜 6시에 시작하지?” 같은 상황이 여기서 생기는 거고.

중앙유럽시간(CET/CEST, 라리가)에서 KST로 바꾸는 법

라리가는 예시로 금 21:00, 토/일 14:00·16:15·18:30·21:00, 월 21:00(CET) 같은 현지 시간이 안내돼 있어. 그리고 한국 시청자는 중앙유럽시간(CET/CEST)에서 KST로 변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여기도 논리는 단순해. CET와 CEST만 구분하면 돼.

- CET(표준, UTC+1)일 때: KST = 현지시간 + 8시간
- CEST(서머타임, UTC+2)일 때: KST = 현지시간 + 7시간

여기서 중요한 건 “중계 공지가 CET라고 딱 써줬는지”야. 예시처럼 월 21:00(CET)라고 적혀 있으면, 그건 서머타임이 아닌 기간의 21시를 의미한다고 봐도 된다. 대신 공지에서 CET/CEST를 명확히 안 적고 “현지 시간”만 쓰는 경우가 있으면, 그건 경기 날짜 기준으로 서머타임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정확해져.

라리가 예시 숫자로 바로 감 잡아보자.

예시: 월 21:00(CET)

KST = 21:00 + 8시간 = 05:00

이건 한국에서 새벽 5시로 떨어지는 패턴이야. 그래서 “라리가 새벽 5시 경기인가?” 싶은 날에 공지에 CET가 찍혀 있으면 꽤 맞아떨어지는 편이지.

예시: 토/일 21:00(현지, CET/CEST 표기 없음)

표기가 없으면 서머타임 구간에 따라 달라져.

- CET로 계산하면 21:00 + 8시간 = 05:00
- CEST로 계산하면 21:00 + 7시간 = 04:00

여기서 1시간 차이로도 생방 타이밍이 달라지니까, 표기가 없을 때는 “대충 5시겠지”라고 잠들었다가 1시간을 날리는 일이 생겨.

분데스리가도 결국 같은 원리, 다만 시작일이 힌트가 됨

분데스리가는 2026/27이 2026년 8월 28일 시작, 그리고 풀 일정은 2026년 7월 2일 공개됐다고 되어 있어. 오프닝 매치는 바이에른 뮌헨 vs VfB 슈투트가르트로 발표됐고.

여기도 중앙유럽 시간(CET/CEST) 계산 원리는 라리가랑 결이 비슷해. 다만 시작일이 8월 28일이면, 서머타임이 적용되는 기간일 가능성이 높고(유럽 특성상), 그래서 계산할 때 +7 또는 +8이 갈릴 수 있어. 정확한 건 해당 경기의 현지 시간 표기에서 CET/CEST가 어떻게 찍혔는지 확인하면 가장 깔끔해.

내가 예전에 가장 자주 하던 실수는 이거였어. “분데스도 라리가랑 시간표 똑같이 보지 뭐”라고 생각하고, 서머타임 여부를 그냥 한 번에 끝내버린 거. 그 결과 경기 시작 시간이 1시간씩 밀려서, 후반 들어가 버린 적이 꽤 있어. 해외축구중계는 이런 식으로 한 번만 틀려도 재미가 반으로 줄거든.

시차 계산을 ‘한 번에’ 끝내는 현실적인 방법

여기까지 읽으면 알겠지만,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아. 문제는 서머타임과 표기 방식이 너를 방해한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는 계산을 하되, 검증을 붙이는 게 제일 편해.

나는 보통 이렇게 해. 킥오프 시간을 볼 때 “현지 시간”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 리그 편성 안내가 어떤 시간 체계인지 힌트가 있는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KST로 바꿔서 내 캘린더에 적어. 캘린더에 넣을 때는 “알람은 10분 전”으로. 새벽 경기면 10분 전이 아니라 20분 전이 더 현실적이긴 해. 준비하다 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사라져.



그리고 축구중계사이트나 앱을 쓴다면, 거기서 KST 변환이 제공되는지 보는 게 좋아. 한국 시청자 입장에서는 “내가 계산한 값”과 “사이트가 제공하는 값”이 딱 맞아떨어지는 걸 한 번 확인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확신이 생겨.

여기서 체크만 하고 넘어가자. 아래는 내가 실제로 쓰는 최소 확인 루틴이야.

- 중계가 안내하는 시간이 “영국 시간”인지 “CET/CEST” 같은 중앙유럽 시간인지 확인하기
- 킥오프가 주말 15:00, 평일 20:00처럼 기본값으로 제시되는지 확인하기
- 날짜 기준으로 서머타임 여부가 표기 또는 서비스 변환에 반영되는지 확인하기
- 축구중계, 해외축구중계 중 어떤 리그인지 먼저 고정하고 계산하기
- 모바일이나 TV에서 KST로 표시되는지, 지연이나 해설 언어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이 정도만 해도 “오늘만 이상해” 류의 사고가 확 줄어.

실전 예측: 일정이 섞일 때 KST가 헛갈리는 포인트

시차 때문에 헛갈리는 상황은 생각보다 반복 패턴이 있어.

첫째, 같은 리그라도 주말 경기와 평일 경기가 섞이면, 영국 시간 기준이 15:00과 20:00으로 갈리니까 KST 차이가 커져. 예를 들어 EPL은 주말·공휴일이 15:00, 평일이 20:00이라고 했잖아. 한국에서는 둘 다 새벽이긴 해도, “몇 시 새벽이냐”가 달라진다. 그래서 일정표에서 하루만 보고 “대충 비슷한 시간대겠지” 하고 넘기면 틀리기 쉬워.

둘째, 현지 시간 표기에서 CET/CEST가 명확하지 않으면 1시간 차이로 흔들려. 라리가는 예시에서 CET가 명시된 케이스가 나오지만, 모든 경기 공지가 항상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건 아니야. 그래서 “표기 방식”을 보고 계산할지, 사이트 변환을 믿을지 선택해야 해.

셋째, 캘린더 알림을 늦게 켜는 습관도 문제야. 해외축구중계는 시작 시간이 새벽인 경우가 많아서, 알림을 5분 전에 맞추면 자꾸 놓치더라. 전날에 컨디션 확인하고, 경기 전반부터 보고 싶으면 최소 10분은 여유를 두는 게 편해.

축구중계사이트 고를 때, 시차 관련으로 특히 봐야 할 것

시차 계산만 잘해도 절반은 먹고 들어가지만, 나머지 절반은 “그 시간을 제대로 보여주고 재생 안정성이 있는지”에서 갈려. 해외축구중계를 볼 때 축구중계사이트나 중계 앱을 고를 때는 이런 요소가 중요해.

특히 상황은 이래. 리그 일정이 자주 업데이트될 수 있고, 경기 시간도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일단 보여주는 시간”보다 “실시간 일정 업데이트를 해주는지”가 중요해져.

또 KST 변환을 제대로 제공하는지도 봐야 하고, 지연(영상 딜레이)이나 해설 언어가 어떤지에 따라 만족도가 갈려.

경험상 모바일에서 먼저 보고, TV로 옮길 때 시간 표시가 바뀌거나 스트림이 밀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 그래서 한번은 “내가 기대한 KST”와 실제 재생 시작 타이밍이 맞는지 가볍게 확인하는 게 좋아.

리그별로 기억해두면 좋은 ‘한 줄’ 기준

계산식은 알아도, 사람 머리가 매번 숫자 넣고 계산하긴 힘들잖아. 그래서 나는 리그별로 “기본값 힌트”를 짧게 기억해둬. 긴 계산은 필요할 때만 하고, 평소에는 판단을 빠르게 하는 용도야.

- EPL: 주말·공휴일은 영국 시간 15:00, 평일은 20:00을 기본으로 생각
- 라리가: 중앙유럽시간(CET/CEST) 기준으로 현지 시각이 안내되니 KST로 변환 필수
- 분데스리가는 유럽권 시간이라 CET/CEST 계산 흐름으로 접근, 다만 경기 날짜에 따라 1시간 차이 가능성 주의

여기까지 잡아두면, 갑자기 일정표가 바뀌어도 “내가 지금 뭘 기준으로 보고 있지?”라는 혼란이 줄어.

마무리 대신, 내일 새벽 경기부터 바로 써먹는 팁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이거야. 해외축구중계에서 시차 때문에 한 경기를 통째로 놓치지 않는 것.

그래서 오늘 정리한 계산법을 한 번 더 현실 루트로 연결해볼게.

경기 공지를 보면 먼저 “영국 시간인지, CET/CEST인지”를 찾고, EPL이면 주말 15:00, 평일 20:00 같은 기본값을 확인해. 그러고 나서 GMT/BST인지, CET/CEST인지에 따라 KST가 1시간씩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뒀. 마지막으로 축구중계사이트에서 KST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한 번 교차 확인하면, 다음 경기부터는 실수가 확 줄어든다.

시차는 결국 반복되는 함정이야. 한 번 제대로 걸리면 “아 또?”가 되고, 그때부터는 늘 불안하게 돼. 반대로, 딱 한 경기만 제대로 맞추면 다음부터는 훨씬 편해진다. 새벽에 일어나서 경기 보기 시작하는 순간, 그 불안이 사라지는 게 체감으로 제일 커.

원하면 네가 보고 싶은 리그와 경기 날짜, 그리고 공지에 적힌 현지 킥오프 시간을 알려줘. 그 정보만 있으면 KST로 어떻게 떨어지는지 계산해서, 알람을 몇 시로 맞추면 좋은지도 같이 잡아줄게.